

## 韓國人の 教育熱

全 成 連  
(高麗大 教育學科)

지구상에서 가장 왕성한 教育熱을 가진 민족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韓國人이 지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大學에 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이 소망을 위해서 한국의 부모들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희생을 감내한다. 최근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過熱課外 현상, 학부모의 치맛바람, 지방 인구의 서울 集中化, 서울 江南의 教育特區化,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 기관화, 입시 학원의 성업 등은 過熱 教育熱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분명한 일이다.

過熱 教育熱의 頂點은 바로 大學 入學試驗이다. 한국에 태어난 사람의 人生의 質은 바로 이 대입 입학 시험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입학 시험 제도의 변경은 온 국민이 관심을 쏟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 저금에 이르기까지 대입 시험 제도는 그 골격이 여덟 차례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채 최근에 새로운 試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이 진정되기 전에는, 그리하여 대학 입학 지원자의 수와 대학 입학자의 수가 균형을 유지하기 전에는 어떠한 입시 제도가 채택되든 간에 그 제도가 모든 입시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제도로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막연히 教育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統計的으로 살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해방 당시 고등교육 기관 수라야 19 개교에 학생 수는 8천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6·25 전란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 개발 정책과 고급 인력 수요에 힘입어 고등교육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75년도의 고등교육 기관 재학생 수는 23만 5천 명에 불과하였다. 경제 개발이 加速化되고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꾸준히 대학 입학 정원이 늘어난 결과 1980년에는 대학생 수가 56만 5천 명으로 5년만에 대학생 인구가 약 2배로 증대되는 경이를 보였다. 1981년에는 卒業定員制의 실시로 30%의 신입생을 더 뽑게 됨에 따라 1985년도의 대학생 수는 126만 명으로 다시 5년만에 학생 수가 2배로 증가하는 世界 高等教育史에 그 類例가 없는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韓國 高等教育史에 있어서 1975년과 1985년 사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

간이다. 量的 指標로 볼 때 10 년간에 대학생 수가 100 만 명이 증가된 예는 앞으로도  
깨기 어려운 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9 년도에 출판된 UNESCO 의 統計資料에 의  
하면 인구 10 만명당 고등교육 기관 재학생 수는 1 위가 미국으로 5,167 명, 2 위가 카  
나다로 4,853 명 그리고 3 위가 한국으로 3,606 명이다. 그런데 남학생만을 별도로 따  
져 볼 때는 남자 인구 10 만명당 남자 대학생의 수가 한국이 5,031 명으로 1 위, 미국  
이 4,997 명으로 2 위 그리고 캐나다가 4,602 명으로 3 위이다. 일본은 뚝 떨어져서 2,586  
명으로 10 위 정도가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開放型 大學制度를 택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한국, 스웨덴, 덴  
마크, 노르웨이, 일본 등의 고등교육 인구가 비교적 큰 규모인데, 이것은 能力主義와  
平等主義가 대학 제도의 이념으로 故存하여 양 이념이 서로 調和·調整하는 제도상의  
우월성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先  
進國이란 점에서 이와 같은 指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더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대학 인구의 量的 成長이라는 관점에서 質的 成長이란 관점으로 시카를 옮기면 우리  
는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수 1 인당 학생 수,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학  
교 시설 여건, 도서, 교수의 수업 부담,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 質的 指標에 비추  
어 볼 때 우리의 대학은 그 외형적 성장에 비해 內的으로는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희망자 수에 비해서 대학 입학 문은 아직도 좁은 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학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학생 수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  
통령이나 문교부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는 政策事項이 아니라 한국인의 교육열이 있는  
한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흐름이다. 문제는 이들 고등교육 인구가 사회에 배출  
될 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다. 지금까지는 경제가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고등교육 인구가 세  
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膨脹을 해왔어도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989  
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에 관한 한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만일 경제  
성장의 기초가 反轉되어 경제적 여건이 어렵게 되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  
배출 인력은 우리 사회가 극복하기 어려운 무서운 不安要因이 될 것이다. 현재 그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졸업자가 학력을 속여서 하위 직급으로 취업  
한다든가, 4 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이 비교적 잘되는 2 년제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만일 고학력 뿐만 세력이 단합되고 어떤 힘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것은 과잉 교육열의 주로 긍정적인 측면이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경제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는 나라의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인의 교육열  
을 發展의 原動力으로 부추기고 있으나, 교육열도 그것이 적절할 때 생산적인 것이지  
너무 과도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病理現象으로 직결되고 만다. 우리는 아직 과잉 교  
육열의 부정적인 측면과 그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역사와 사회가 만들어 낸 이 터무니 없는 교육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社會政策的 對策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도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직무 구조의 분석에 터해 직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과 자격을 우대하는 대책과 함께 교육계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향학열을 부추기는 입시  
지향 교육을 종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